徐命膺의 『皇極一元圖』에 나타난 易學思想 분석*

- 소강절 역학과 서명응 역학의 영향과 관련하여 -

조 희 영**

1. 시작하는 글
2. 선결사항 분석
3. 『皇極一元圖』에 나타난 易學思想
4. 마치는 글-절반의 성공

초록: 본 글은 奎章閣 소장 서명응의 『皇極一元圖』에 나타난 易學思想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황극일원도』(이하 '이 도설'이라 함)는 소강절 원회운세식 조선 역사서로 앞서 신익성과 홍계희가 지은 것과 같은 종류의 역학적 역사서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내용이 충실하고 천세력이 들어있다는 특색이 있어, 원회운세식 조선 역사서의 완결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연원을 따져보면 이 도설은 서명응 역학에서 나왔고 서명응 역학은 강절역에서 나왔다. 따라서 논문의 선결 사항으로서 강절역이 이 도설에 미친 영향과 서명응 역학이 이 도설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도설을 서문, 상·하편으로 나누어 분석한바, 서문에서 영조의 염원과 서명응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절의 數도 결국 「하도」 중궁에서 나왔고 先天學은 心法이며 그림은 모두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萬化萬事는 마음[心]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서명응은 이 도설을 以理觀物하여 先天心法과 三聖心法을 깨우쳐서 복희 선천시대가 후천의 영조시대에도 가능함과 사대부도 이를 알아야 함을 주장했다. 상편은 원회운세 네 단계를 一元 12회 360운 4320세 129,600년으로 구분하고 이를 강절의 사부법인 日月星辰으로 재배치하며, 다시 12회에 상응하는 12벽괘를 부여했다. 인문의 흥망성쇠의 분기점을 나타내는 卦로 乾卦와 姤卦를, 시대로는 요임금 때를 잡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775).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다. 서명응은 다른 역사서와 달리 복희씨 원년을 己巳會 辛酉運 戊戌世 癸酉年(BC.2999)이라 했다. 이는 강절도 말한 바 없다. 서명응은 一元의 시종이나 1년, 1달, 1일의 시종 또한 數와 理로 치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이 도설로 알 수 있다고 했으며, 그 '理'는 불변이기에 원회운세의 수도 리를 위배할 수 없다고 했다. 하편은 천세력을 더해서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고자 한 것이다. 서명응은 과거의 연고를 정확히 알면 앞날에 일어날 일도 앉아서 알 수 있다는 점을 『孟子』를 인용하여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서명응은 이 도설을 통해서 선천학을 시대의 중심사상으로 삼고자 했다. 그것을 영조에게는 제왕학으로 바치고 사대부에게는 시대를 선도하는 계몽도설로 제시했지만, 현실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핵심어 : 『皇極一元圖』, 서명응, 선천학, 『선천사연』, 선천심법, 「하도」 중궁, 소강절, 원회운세.

1. 시작하는 글

본 글은 奎章閣 소장 徐命膺(1716-1787)의 『皇極一元圖』[1]에 나타난 易學思想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황극일원도』(이하 '이 도설'이라고도 함)는 서명응이 1773년 영조의 어명에 의해 편찬하기 시작하여 1774년에 완성한 것이다. 邵康節(1011-1077) 元會運世論을 중국과 조선 역사에 대입한 역사서로서 원회운세식 조선 역사서의 완결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기본 성격은 소강절 역학(이하 '강절역'이라 함)이 조선에 인문학적으로 영향을 준 역사서인 동시에 강절역과 서명응 역학이 녹아 있는 역학서이다. 서명응은 조선후기 문명과 권세가 높고 학식과 덕망이 넉넉했던 대구서씨 京華世族의 일원이다. 현재 학계에는 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2] 따라서 서명응에 대한 기초 사실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5개 판본의 서명응의 『皇極一元圖』가 있다. 내용은 동일하다. 간행자:秘書省. 책권수:2册. 帝室圖書之章(奎 44-v.1-2, 奎 45-v.1-2, 奎 46-v.1-2), 侍講院(奎 45-v.1-2), 弘文館(奎 46-v.1-2). 史部 史表類.

2) 대표적인 몇 논문만 들겠다. 金文植, 1999 「徐命膺의 생애와 奎章閣 활동」, 『정신문화연구』 75, 151-184면; 장원목, 2003 「保晩齋 徐命膺의 生涯와 學問 : 學問的 問題意識을 중심으

않겠다. 인간됨을 집약해서 말한다면, 그는 조선후기 르네상스시대로 비유되는 영・정조시대 학계와 사상계를 이끌어가는 文衡이자 왕실 측근이었다. 고위관료이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분야를 찾아 觀物하고 지적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한 지식인이었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백과전서류인『保晩齋叢書』를 지은 사대부 작가였다. 이 총서에 함유된 실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이 도설에 대해서는 논문 한 편이 있다.[3] 그 논문은 이 도설의 역사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고 이전에 지어진 원회운세식 조선역사서인 申翊聖(1588-1644)의『康節先生皇極經世書東史補編通載』와 洪啓禧(1703-1771)의『經世指掌』과 비교하면서 상수학적 부분과 曆書적인 부분을 함께 아우른 글이지만 역학에 대한 전문적 분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易學界의 연구는 필자가 처음이다. 이 도설을 이해하려면 선제적으로 알아야 할 두 요소가 있다. 하나는 강절역에 대한 이해이고, 또 하나는 서명응 역학에 대한 이해이다. 이 도설은 서명응 역학에서 나왔고 그의 역학은 강절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절역과 서명응 역학을 이해한 뒤 이 도설을 분석해야 이해가 빠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역학 전반을 살피는 것은 지면의 한계도 있고 본 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역학 가운데 이 도설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 골라 선결 사항으로 묶어서 다음 장에서 살핀다.

잠시 조선조 강절역의 전승에 대해 알아보자.[4] 큰 줄기로 보면, '권근 - 서경덕

로」,『한국사상과 문화』22, 7-35면; 曺蒼錄, 2004「조선조 開城의 學風과 徐命膺 家의 學問」,『대동문화연구』47, 193-219면; 이봉호, 2005「徐命膺의 先天學 體系와 西學 解釋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韓芪燮, 2010「徐命膺一家의 博學과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조희영, 2011「徐命膺의『先天四演』에 관한 硏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이대승, 2017「서명응 선천학의 스펙트럼과 초점」,『한국실학연구』33, 151-185면.

3) 박권수, 2018「曆書와 歷史:조선후기의 象數學的 年代記書와 時憲曆」,『동국사학』64, 47-88면. 이 논문은 2006년 본인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위 3인들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아래에 열거하는 자는 강절역을 자신의 중요한 주장 논거로 삼은 학자이며 이외에도 다수

- 신흠, 신익성 가문 - 최명길, 최석정 가문 - 서명응 가문'으로 이어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강절역은 여말선초 李穡(1328-1396)학파에서 시작되었다.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이 그들이다. 특히 권근(1352-1409)의『입학도설』은 조선에서 도서상수학을 개시한 저서이며,「선천도」등이 소개되었다. 그 이후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1443)에 강절역이 역할을 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서경덕(1489- 1546), 장현광(1554-1637), 신흠(1566-1628) 가문이 뒤를 이었다. 서경덕은 명실상부한 강절역 1세대이다. 신흠은 강절의 수학과 성음을 풀이한 서경덕을 추앙했고, 조선 후기 강절역 부흥의 교량 역할을 했다. 이후 신흠에게서 역학을 배운 최명길(1586-1647)과 그 손자 최석정(1646-1715)도 강절역을 기반으로 수학과 음운학에 걸출한 업적을 남겼다. 동시대 김석문(1658-1735)은 천문학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이면에는 강절역이 존재했다. 그 이후 신경준(1712-1781)의 음운론과 서명응(1716-1787)의 선천역학, 황윤석(1729-1791)의 수학과 음악, 음운론의 바탕에는 강절역이 깔려 있었다. 조선조 마지막 실학자라는 심대윤(1806-1872)도 강절역에 정통했다. 이들은 대체로 사승관계는 아니지만 非老論이다(단, 김석문, 황윤석은 노론계). 역학 이외에도 강절의 문학이나 삶의 방식을 흠모한 학자도 적지 않았으니, 조성기(1638-1689)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지닌 공통점은 대부분 스승 없이 자득했다는 점과,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파격성과 創發性이 있다는 것이다. 허기야 강절이『周易』에 없는 선천역학을 개창했으니 그 후학들도 일정 부분 비슷한 면을 지녔다. 특히 서명응은 새로운 각도에서 역학을 대하고 해석하는 점이 눈에 띤다.

본 논문의 논의 순서는 2장에서 선결 사항을 분석하고, 3장에서『황극일원도』에 나타난 易學思想을 서문과 상편, 하편의 셋으로 살펴보며, 4장에서는 논의의 전반을 요약하고 서명응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한다. 본 글에서 서명응 사상을 논할 때 객관적인 시각과 일정 부분 비판적 관점을 유지할 것이다.

가 있다.

2. 선결 사항 분석

1) 강절역이『皇極一元圖』에 영향을 미친 부분

소강절 역학을 先天易學[5]이라 한다. 그 易理는『황극경세서』에 나와 있고 문학적 배경은『伊川擊攘集』에 나와 있다. 강절은 理學을 추구하는 宋易과 같은 궤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理'에 더욱 천착한다. 이때 그가 구사하는 학문방법론은 기존 역학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역리를 '圖象[易圖說]'으로 나타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역리를 '數[易數論]'로 나타낸다는 점이다.[6] 선천역학이란 학적 체계는 6개 범주 - (1) 圖象論, (2) 元會運世論, (3) 聲音唱和論, (4) 觀物論, (5) 理數論, (6) 心法論 - 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도설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도상론, 원회운세론, 관물론, 리수론, 심법론이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본다.

(1) 圖象論: 강절은 宋代 圖書象數學의 3대 그림 -「先天圖」,「河圖洛書」,「太極圖」- 가운데「선천도」를 들고 역학의 무대에 등장했다. 송대는 易理를 圖說로 논하는 학문적 경향을 띠었고 강절역 역시 그런 학적 풍토 속에 있었다. 이 그림들은 모두 陳摶(871?-989)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7] 그의 선천역학은 종

---

5) 선천역학이란 강절이 창안한 易外別傳的 易學이다. '선천'이란 말은 乾卦 文言傳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大人의 행위규범에 대한 말이다. 그러나 강절은 선천의 의미를 다르게 쓴다. 시기적으로 선천시대를 요임금 이전이라 하고 요임금 이후를 후천시대라 한다. 선천시대는 순수한 氣가 넘치고 인간사에 誠이 지배하여 인간의 본성이 보존되는 이상적인 시기라고 한다. 그는 지금 후천시대에 살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선천의 복희시대와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통로로 관물론과 심법론을 제시한다.

6) 강절은 다른 상수학자와 달리 象과 數의 결합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상과 수가 분리・회통하는 점이 학문간 융합이나 학제간 통섭의 기제가 된다. 그래서 강절역을 통해 인문학 자연학 가리지 않고 학문적 융합 교섭이 이루어졌다.

7) 朱伯崑(1923-2007)과 廖名春 등은 朱震(1072-1138)이『漢上易傳』「進周易表」에서 주장한 송대 3대 圖書의 陳摶(871-989?) 유래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선천도」는 陳摶-種放-穆修-이지재-소강절,「하도낙서」는 진단-종방-이개-허견-범악창-劉牧(1011-1064),「태극도」는 진단-종방-목수-周濂溪(1017-1073)라고 했다. 주백곤, 2005『易學哲學史』2권, 北京 곤륜출판사, 10-59면; 료명춘 외 2명 지음(심경호 옮김), 2004『주역철학사』, 예문서원, 419면.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의견은, 유승상, 2019

전의 역학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易을 선천역(학)과 후천역(학)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선천역은 伏羲가 창안한 것으로 無文字易으로 伏羲易이라 했고, 후천역은 통행본『周易』으로 文王易이라 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선천역이 體이고 후천역이 用이며 후천역은 선천역에서 나왔다고 했다. 주요 차이점은 卦辭 유무와 卦序가 다르고「계사전」의 '태극1-양의2-사상4-팔괘8'를 근간으로 하는 加一倍法이란 理數法則으로 역괘가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강절의 이런 주장을 '易의 綱領이자 역의 첫째 의의'[8]라고 수용한 朱子(1130-1200)에 의해서 역학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허나 청대에 와서 부정되었고 정약용 등도 비판적이었다.「선천도」는 보통 4~6개의 그림과 圖說로 제시되었는데『周易本義』나『周易傳義大全』에 실린 것들이 그것이다.[9] 그의 도상론 -선천역학의 정신- 은 이 도설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다.

(2) 원회운세론: 강절이 역학계에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가 '역학으로 歷史 읽기'이다. 이른바 원회운세론이다. 曆數인 12와 30의 중첩적 적용을 근간으로 64卦와 60甲子, 干支를 해마다 대입하여 요순시대 이래 송대 인종 때까지 주요 역사적 사실을 역학적으로 풀이한 年代記年書이다. 1世 30년, 1運 360년, 1會 10,800년, 1元 129,600년이란 시간 단위를 가지고 천지의 始終을 129,000년을 한 단위[一元]로 제시하여 그 속에 天地人物의 생장소멸을 논하고 중국 역사의 흥망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 추리 역사론이니 추산된 역사 속에 배치된 易卦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10] 아울러 일원의 기간이 다시 반복된다는 일종의 우주 순환사상을

「송대「하도낙서」도상의 출현과 그 정립과정」,『주역의 연원과 한중 역학의 지평』(한중철학회 편), 경인문화사, 161-188면 참조.

8)『易學啓蒙』原卦畫第二, "太極兩儀四象八卦, 此乃學易綱領, 開卷第一義."

9) 先天圖로는 '伏羲八卦次序之圖', '伏羲八卦方位之圖', '伏羲六十四卦次序之圖', '伏羲六十四卦方位之圖' 이상 4개 그림이 있다. 後天圖로는 '文王八卦次序之圖', '文王八卦方位之圖' 이상 2개 그림이 있다.

10)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간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강절은 하나의 '모형'을 제시 했을 뿐이다. 해석은 각자의 몫이나 그 數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면의 역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계사전」上 5장에서 말하는 '生生之謂易'의 강절식 역사 인식이기도 하다. 과학적 근거나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이 이론이 역학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變易의 관점으로 古今의 세상만사를 성찰하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당시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는 원회운세로 조선의 역사를 작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었고,[11] 본 글에서 논의할 이 도설 역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말하자면 이 도설은 강절 원회운세론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역사서로 조선식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3) 觀物論: 강절역의 철학적 두뇌는 '관물편'이다. 『황극경세서』에 수록된 관물편은 觀物內篇과 觀物外篇으로 나뉜다. '觀物'은 '사물[物]'과 '관찰[觀]의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 강절은 먼저 '物'에 대해 언급한다. '물'로는 '天地'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첫머리에 '천지'를 언급하고 다시 천지를 나누어 천[動]에는 陰陽, 지[靜]에는 剛柔를 배분한다. 一動一靜의 작용[交]으로 천지의 道가 이루어진다. 음양에는 춘하추동 四時를, 강유에는 동서남북 四維를 배분한다. 또 음양에 태양, 소양, 태음, 소음과 日月星辰과 寒暑晝夜가 배분된다. 강유에는 태유, 태강, 소유, 소강과 水火土石과 雨風露雷가 주어진다. 이런 요소들이 동인되고 성정형체가 교대로 작용하여 走飛草木과 동식물의 감응이 다 이루어진다.[12] '물'은 이뿐만 아니다. 인간사, 자연사 모두 '물'이다. 聖人과 凡人이 있고 원회운세와 皇帝王伯의 역사가 있고 歲月日時의 시간과 易書詩春秋의 경전이 있으며 意言象數와 仁義禮智, 聖賢才術이 있다. 삼황오제 같은 당세의 성인이 있고 孔子 같은 만세의 성인도 있다. 강절은 聖·經의 최종 귀결처로 공자를 제시한다. 물을 직관하여 천지로 나누고 다시 음양강유 등으로 나누다가 최종적으로 공자로 종합하여 선천역학의 종지로 귀결시킨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관'할 것인가? 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그는 "눈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지 말고 이치[理]로 사물을 보라."[13]라고 한다. 요점은 '리'로 사물을 보라는 것이다. 이때 '리'는 각 사물

11) 신익성과 홍계희 및 서명응의 역사서가 그것이다.

12) 『황극경세서』, 661-682면. 본 글에서 인용하는 『황극경세서』, 『易學啓蒙』은 『性理大全』本(1989, 학민문화사)이다.

이 지닌 본연의 '리'이다. 그는 '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천하의 사물은 모두 理를 가지고 있고, 本性과 命을 가지고 있다. 리란 그것을 궁리한 후에 알 수 있고 본성은 그것을 다 실현한 뒤에 알 수 있고 명은 다다른 후에 알 수 있다."[14] 라고 말한다. 둘째, '反觀'하여 '以物觀物'하라고 한다. 반관과 이물관물이란 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보되 사물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다. 사물로써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어찌 그 사이에 틈이 있겠느냐고 한다.[15] 반대로 돌이켜서 사물을 보되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自他가 同體가 되어 인식의 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강절의 관물론은 이 도설의 중요한 바탕 이론이 된다.

(4) 理數論: 강절역의 또 하나 특색은 수로 역리를 논하는 점이다. 그는 만물의 이치는 수로 이루어졌기에 수로 이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절이 유학에 끼친 영향 중에 하나가 '수학'을 유가철학의 영역에서 논한 것이다. 강절에 있어서 '數'는 '理'와 동의어라서 그가 말하는 수는 '理數'이다. 허나 그는 術數를 극력 배격한다.[16] 고회민은 역학에서 리수를 발명한 사람은 강절이라 한다.[17] 강절은 수를 象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고 수[易數]에서 상[易象]이 나왔다고 한다. 홀수 1에서 陽劃[－], 짝수 2에서 陰劃[--]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강절에게서 '수'는 象과 분리된 독립변수가 된다.[18] 리수론에서 강절이 사용하는 수리적 도구

---

13) 『황극경세서』, 806면, "夫所以謂之觀物者, 非以目觀之也. 非觀之以目而觀之以心也. 非觀之以心而觀之以理也."

14) 『황극경세서』, 807면, "天下之物莫不有理焉, 莫不有性焉, 莫不有命焉. 所以謂之理者, 窮之而後可知也. 所以謂之性者, 盡之而後可知也. 所以謂之命者, 至之而後可知也. 此三知者, 天下之眞知也. 雖聖人無以過之也." 이는 「설괘전」 1장 "窮理盡性以至於命"의 부연 설명이다.

15) 『황극경세서』, 808면,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旣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16) 『황극경세서』, 868면, "天下之數出於理, 違乎理則入於術. 世人以數而入術, 故失於理也." 세간에서 강절이 영험한 점쟁이[술수가]로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17) 高懷民 著(곽신환 옮김), 2011 『소강절의 선천역학』, 예문서원, 349-350면. 고회민 著, 1997 『邵子先天易哲學』, 臺灣 荷美印刷, 347면 참조.

18) 강절에게서 순수 수학자-동양의 피타고라스-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주백곤은 그를 수학파라 부른다. 주백곤, 앞의 책, 128면 참조.

는 가일배법, 四府法, 체4용3, 極數, 體用數 등이다. 가일배법은 앞서 봤듯이 2배로 늘어나는 연산수칙이며, 사부법은 만물을 4씩 세트로 분류하는 만물분류법이다. 체4용3은 그의 독특한 수적 체용론으로 본체에서 1/4은 남겨두고 3/4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1은 3을 위해 내장되어 不用한다는 것이다. 천지를 수로 나타내면 각각 5인데 그중 4는 유체[본체]이고 1은 무체이다. 무체 1은 자연에 비유된다. 유체 4에서 3은 쓰고 1은 불용한다. 불용하는 1은 道에 비유되고 용하는 3은 天地人에 비유된다고 한다.[19] 리수론 역시 이 도설의 기초이론이다.

(5) 心法論: 강절역의 철학적 심장은 '心法論'이다. "先天學, 心法也"란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또 "「선천도」는 모두 '中'에서 일어난다. 천지만물의 변화는 마음에서 생긴다[圖皆從中起. 萬化萬事生于心也]"라 한다. '중'과 '心'을 동렬에 놓고 선천역에 마음으로 다가서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이 도설에 직접 인용된다. 문사대신 선천역의 卦象을 통해 '심'으로 관물하여 易의 본지를 파악하란 뜻이다. 그 마음[心]은 복희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마음을 '誠'의 상태로 돌려 반관하면 '誠'이 지배하는 복희시대와 같은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心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하니 복희의 心과 현재 자기의 心을 소급하면 하나로 같아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후천시대인 현재는 선천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절은 '心'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심법론은 후대 심학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렸다는 그의 언명은 불교의 유심론과도 상통한다. 그의 심의 영역은 유불도에 구애받지 않는 듯하다.[20] 이런 심법은 서명응 역학에서도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이 도설에서도 역시 중심개념으로 등장한다.

---

19) 『황극경세서』, 815면, "天數五, 地數五, 合而爲十, 數之全也. 天以一而變四, 地以一而變四. 四者有體也, 而其一者無體也, 是謂有無之極也. 天之體數四而用者三, 不用者一也. 地之體數四而用者三, 不用者一也. 是故無體之一以況自然也. 不用之一以況道也. 用之者三以況天地人也."

20) 김문갑은 강절역에는 儒佛道 三敎와 회통하는 화해의 정신이 있다고 했다. 김문갑, 2000 「소옹 선천역학에 관한 연구-우주론과 심성론 체계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21면 참조.

2) 서명응 역학이 『皇極一元圖』에 영향을 미친 부분

서명응 역학은 그가 편찬한 『보만재총서』의 서두에 실린 『先天四演』[21]에 집약되어 있고 이 도설 역시 『선천사연』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위에서 본 강절역의 내용은 『선천사연』의 기초를 이루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강절역을 계승한 서명응이지만 『선천사연』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런 창발적인 부분이 있기에 서명응의 역학이 돋보이는 것이다. 『선천사연』에 나타난 서명응역학 역시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선천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先天四演]과 선천에 이르는 네 가지 길[先天四道] 제시, (2) 「하도」 중심 선천학 정립, (3) '一事無'와 「하도」 중궁의 '中'을 통한 心法論, (4) 역괘 생성 순서에 대한 새로운 주장, (5) 역동적인 天體易學觀 제시, (5) 선천학으로 西學 수용 (6) 선천학으로 道家 포섭, (7) 창의적 변형-先儒 이론의 과감한 변경[방원도 改作] 등이다. 여기서는 이 도설에 영향을 미친 (2), (3), (7) 부분을 살펴본다.[22]

(1) 「하도」 중심 선천학 정립: 강절은 「하도낙서」에 정통했고 「하도」가 역의 시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아들 소백온은 자신의 부친만이 이 도서의 전수계통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23] 그러나 강절은 「하도」로 자신의 선천역을 논하지 않았고 「하도」와 「선천도」는 별개로 보았다. 반면 서명응은 先天四圖[8괘차서도, 64괘차서도, 8괘방위도, 64괘방원도]의 상위에 「하도」를 두고, 「하도」[體]에서 先天四圖[用]가 나왔다고[24] 했다. 또 선천사도에 차서를 매겨, 64괘차서도를 體, 나머지는 用이라 했다. 따라서의 서명응 역학에서 도서는 '「하도」-64괘차서도-8괘차서도・8괘방위도・64괘방원도'의 순위가 매겨진다. 이처럼 「하도」를 우위에 둔 이유는 「하

21) 『선천사연』은 맹천술이 1987년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易理의 새로운 해석』이란 이름으로 번역한 바 있다. 맹천술, 1987 『易理의 새로운 해석』, 수영문화사.

22) 조희영, 앞의 논문 참조.

23) 유승상, 앞의 논문, 163면 참조.

24) 『先天四演』 「河圖言箋一」, "先天圖有四,曰八卦圖,曰方位圖,曰次序圖,曰方圓圖, 而四圖皆出於河圖."

도」가 역의 근원을 지닌 '劃前易'[25]이자 인간 지혜의 열림이며 조화의 본원으로 보기 때문이다.[26] 이로써 서명응 역학은 강절과 차별되는 '「하도」 중심 선천학'이란 '조선의 새로운 선천학'을 정립하는 길목에 들어서게 되었다.[27] 서명응의 이 이론은 이 도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一事無'와 「하도」 중궁의 '中'을 통한 心法論: 서명응 심학의 특색은 밖으로는 복희 선천 심법을 '一事無'로 집약하고, 안으로는 '中' 사상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일사무'란 선천의 일은 '의도한 바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강절의 詩에서 처음 나왔고[28] 이에 대해 주자는 "자연에서 나와서 安排하지 않은 것으로 선생[강절]은 묵묵히 그러했다."[29]라고 했다. 서명응은 "일사무는 營爲費力이 없는 것이다."라 하고, 또 "선천이 본래 일사무라는 것은 「하도」가 본래 일사무이기 때문이다. 선천을 배우는 자는 일사무의 이치를 살핀다면[以理觀物] 선천이 됨을 알 수 있다."[30]라고 했다. 이처럼 서명응은 자신이 수립한 「하도」 중심 관점으로 '일사무'를 이해한다. 「하도」의 무엇을 통할 것이며, 어떻게 '이리관물' 할 것인가? 이때 그의 '中'사상이 드러난다. 그의 '중'에 대한 관념은 강절의 '그림은 중을 따라 일어난다[圖從中起]'에서 출발한다. 강절의 '중'은 「선천도」의 가운데[中]라는 가시적인 의미와 '心(中), 태극, 極中, 道'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 서명응은 中에 대해서, "中은 心이고, 心法 또한 中이며 중은

25) 『先天四演』「河圖象箋二」, "若河圖, 以其畫前之易也." '획전역'은 강절이 창안한 말이다.

26) 『先天四演』「河圖象箋二」, "河圖, 乃天所以開示造化之本原, 將欲則之, 以開人知."

27) 조희영, 앞의 논문, 302면.

28) 『伊川擊壤集』「先天吟」, 「先天吟」, "若問先天一事無, 後天方要著工夫. 拔山蓋世稱才力, 到此分毫强得乎." '事'는 판본에 따라 字 혹은 作으로 쓰인다. 서명응은 '一事無'로 새기고 있다.

29) 『주자어류』 100권 48조목, "或誦康節詩云: 若論先天一事無, 後天方要著工夫. 先生問: 如何是一事無? 曰: 出於自然, 不用安排. 先生默然."

30) 『先天四演』「方圓言箋」(變橫成圓), "邵子先天吟云, '若問先天一事無. 後天方始着功夫.' 所謂一事無者, 謂無所營爲費力也. 是伏羲之立先天一事無者, 由先天本自一事無也. 先天本自一事無者, 又由河圖本自一事無也. 學先天者, 但觀於一事無之理, 則先天之爲先天, 亦有可以得之者矣."

태극이고, 태극의 자리는 중이다."[31]라 했다. 이때 그는 강절의 中에다 「하도」 中宮을 덧붙인다. 선천을 배우는 자는 그 길을 통과하면, 즉 「하도」 중궁의 이치를 궁리하면 '일사무'를 이해하고 선천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32] 강절은 리수로 선후천역을 탐색했다면 서명응은 「하도」 중궁으로 선후천역에 접근하여 심법을 연역하고 태극을 추출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서명응에게 있어서 「하도」는 천지만물을 담는 거대한 플랫폼이고, 「하도」 중궁은 그 플랫폼을 통괄하는 관제센터인 셈이다. 이 논리 역시 이 도설의 중요한 기초 이론이다.

(3) 창의적 변형-선유 이론의 과감한 변경[방원도 改作]: 서명응 이론에서 돋보이는 이론이자 아킬레스건은 방원도의 임의변경일 것이다. 그는 소강절의 方圓圖(◎)에서 內圖인 정사각형 方圖(□)를 마름모형(◇)으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이 마름모형이 원래 內圖이자 방원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소강절이 주장한 바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강절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조선의 선천학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서명응은 주자-채원정의 河洛論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蔡沈(1167-1230)의 『洪範皇極內篇』에 나오는 99方數圖(◎)도 임의로 마름모형(◇)으로 개작하는데 그 근거 역시 선천학에 둔다.[33] 그러나 이것도 견강부회다. 채침 이론은 선천학과 무관한 洪範九疇와 洛書를 종지로 삼았는데 서명응은 자신의 선천학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서명응의 학문 스타일을 '학문적 독자성' 혹은 '창의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 방법론은 후학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새로운 안목과 넓은 지평을 열어주기도 하는 두 얼굴을 가졌다. 이런 그의 '창의적 변형'은 후술하는 영조의 교지를 확장 해석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

31) 『先天四演』 「河圖意箋五」, "中者心, 心之法中. 中者, 太極. 太極之位中."

32) 「하도」 중궁에 대해 그는 "「하도」 중궁은 心이요, 極이다. 극에서 萬象이 나오고 심에서 만법이 나온다(河圖中宮乃心也, 極也, 極出萬象, 心出萬法之.)"라 했다. 『先天四演』 「河圖象箋二」.

33) 조희영, 앞의 논문, 241-273면 참조.

3.『皇極一元圖』에 나타난 易學思想

『황극일원도』는 上下 2편으로 구성되었다. 상편에는 저술 목적이 담긴 서문이 있고 본론 격인 원회운세식 역사 연대기가 있다. 하편에는 1724년(甲辰年 영조 즉위)부터 1843년 癸卯年까지 120년간의 千歲歷이 기재되어 있다. 천세력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서문에 나타난 역학사상, 상편의 원회운세론 분석, 하편의 천세력 분석 순으로 살펴본다.

1) 序文에 나타난 역학사상

『황극일원도』의 서문은 길지 않는 문장이지만 서명응 선천학의 핵심이 녹아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몇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지은 목적에 대한 것이다.

> 봉조하 홍계희가 편찬한 경세지장은 규모가 간이한 가운데 정성을 들여 강절의 요점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一運의 간지는 상세하나 一世의 60갑자는 소략하여 조목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과거의 合朔은 기술되었으나 다가올 節氣에 대해서는 소홀하여 사용함에 부족함이 있었다.[34]

1758년 지어진 홍계희의『경세지장』은 강절의 원회운세식 연대에 一運의 干支는 자세하나 一世의 甲子는 부족하다는 점과 과거의 合朔은 기록되었으나 미래의 節氣는 기재되지 않아 영조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호조판서이자 世孫의 賓客인 서명응에게 명하여 이들을 보완한 원회운세식 역사서를 다시 짓도록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미래의 절기'를 기재하라는 영조의 명이다. 사실 강절의 원회운세는 과거의 기록서이지 미래의 기록서가 아니다. 그런 점을 모를 리 없는

---

34)『황극일원도』序, "上召戶曹判書臣徐命膺, 若曰故奉朝賀洪啓禧, 所編經世指掌, 規模簡而考据精誠, 邵學之指要. 然詳一運之干支, 而略一世之甲子, 則目有所不備矣. 紀已往之合朔, 而忽方來之節氣, 則用有所不周矣."

영조이지만 이례적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만큼 영조는 조선의 미래가 궁금했다는 것이다. 미래의 절기를 알아 책력의 변동을 감안하고 農政에 참고하면서 천문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 당시만 해도 미래예측에 눈이 밝다고 이름난 강절에게서 어떤 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을 품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어떤 원회운세식 역사서에도 기재된 적이 없는 미래의 절기가 영조의 구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제 영조의 의도는 파악했다. 그 다음은 서명응 역학적 구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서명응은 왕명을 받들어 이 도설을 上下二篇[상편:元會運世圖例. 하편:千歲歷圖例]으로 나누어 지었고 그 속에 그림 139개를 싣고서 총괄하여『황극일원도』라 했다.[35] 이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 부분이다.

> 성상께서 이 책의 편찬을 명한 것이 어찌 한낱 역사의 年數만 고찰하라고 하신 것이겠는가! 先天心法의 中을 여기에서[황극일원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강절의 數는 大衍의 中에서 나왔고 대연의 중은 河圖의 중에서 나왔으니 이른바 先天學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선천학은 心法이다. 그림은 모두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萬化萬事는 마음에서 생겨난다.'[36]라 하고 또 말하기를, '하늘은 一中을 향하여 造化를 나누고, 사람은 마음에서 경륜을 일으킨다.'[37]라 했다. 이것은 수를 理에 짝하여 끝내 심법의 中에 귀결시키는 것이니, 애초에 京房과 郭璞같은 무리들이 수에 빠져 리를 망각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38]

이 부분에 서명응의 속마음이 노출되어 있다. 영조가 자신에게 강절의 원회운세식 조선역사서를 다시 편찬하라고 한 것이 歷代年數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기재에

---

35)『황극일원도』序, "爲篇者二, 爲圖者, 一百三十九, 總名以皇極一元圖."

36)『황극경세서』관물외편, 898면.

37)『伊川擊壤集』,「觀易吟」, "一物由來有一身, 一身還有一乾坤. 能知萬物備於我, 肯把三才別立根. 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 天人焉有兩般義, 道不虛行只在人."

38)『황극일원도』序, "聖上之命修是書. 夫豈徒爲歷代年數之攷据而已哉. 以先天心法之中, 於是乎可見也. 何則. 康節之數, 出於大衍之中, 大衍之中, 出於河圖之中, 而所謂先天學者, 是也. 故其言曰, 先天學, 心法也, 圖皆從中起, 萬化萬事生于心也. 又曰, 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 是蓋以數配理, 終歸於心法之中. 而初非京郭諸人泥數忘理者之比矣."

만 국한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영조의 의중은 '선천심법의 중'을 여기서 발견하라는 취지일 거라고 추측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영조의 지시는 일세의 갑자와 미래의 절기를 기재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천심법 등은 영조의 당초 의도라기보다 서명응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앞에서 말한 '창의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명응은 이 도설을 통하여 자신의 선천학 체계를 군주와 사대부들에게 제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서명응은 강절의 수가 '大衍의 中'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大衍(크게 불려간다)'은 '大衍之數'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대연지수에 대해서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39] 서명응이 의존하는 宋易의 입장에서 보자면,「하도」중궁의 生數 5에 成數 10을 곱하여 나온 50을 '대연지수'로 본다. 또 달리 말하면「하도」중궁의 成數 10은 사방의 10과 합하여 50이 된 것 역시 '대연지수'이다. 이 수가 바로 계사 상 9장[40]에서 말하는 천지지수 55에서 5를 제외한 대연지수 50이다. 이처럼 대연지수 50은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41] '대연의 중'은 무엇인가? 선유들이 '대연의 중'에 대해 말한 것은 찾기 어렵다. 서명응의 신조어인지 모르지만 여기서「하도」중궁을 끌어오고 자신의 선천학에 연결하기 위한 선택어로 보인다. 서명응은 아마 5와 10을 '대연의 중'으로 본 듯하다. 그는 '대연의 중'은 '「하도」의 중'에서 나왔다고 한다.[42] 이처럼 '「하도」의 중'이란 서명응이 정립한 선천학 체계

39) 료명춘 외 2명 지음(심경호 옮김), 앞의 책, 291-295면; 黃壽祺·張善文 撰, 2007『周易譯注』(13經 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513면 참조.

40) 계사 상 9장,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41) 서명응의 大衍觀은 주자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주자는『周易本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大衍之數五十, 蓋以河圖中宮天五, 乘地十而得之. 至用以筮, 則又止用四十九, 蓋皆出於理勢之自然, 而非人之知力所能損益也(대연지수 50은「하도」중궁의 천수 5를 지수 10에다 곱하여 얻은 것이다. 이 50을 占치는데 사용할 때에는 단지 49만 쓰니 이는 모두 이치와 형세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왔고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加減한 것이 아니다)."

42) '대연의 중'과 '「하도」의 중'에 대해『선천사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先天四演』「方圖數箋六」(九六衍數), "以一而衍十, 或以二而衍十二, 或以五而衍五十, 或以八而衍六十四, 小亦衍大亦衍. 此乃伏羲所以有受於河圖中宮者, 而夫子於繫辭言, 乾坤策數已示其衍之之法, 然後人終未明曉. 故邵子推演其法, 以示諸人(1로서 10으로 불린 것도 있고, 2로서 12로 불린 것도 있고, 5로서 50으로, 8로서 64로 불려서 작은 것도 불리고 또한 큰 것도 불리니

에서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중궁이니, 강절의 수도 결국 「하도」 중궁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이는 강절 수의 서명응식 해석이니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43] 이어서 선천학을 心法과 연결하면서 강절의 "선천학은 心法이다. 그림은 모두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萬化萬事는 마음[心]에서 생겨난다"는 언명과 강절 哲學詩 「觀易吟」에 나오는 "하늘은 一中을 향하여 造化를 나누고, 사람은 마음[心]에서 경륜을 일으킨다."를 인용하여 본인 주장의 논거로 삼는다. 여기서 心과 中은 동의어이다. 이 둘은 내포를 같이하는데 그 기제가 바로 수이고 그 수는 理를 머금었기에 理數이다. 그래서 서명응은 "수를 理에 짝하여 끝내 심법의 中에 귀결시키는 것이니, 애초에 京房과 郭璞같은 무리들이 수에 빠져 리를 망각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선천학-中-心-리수'를 연결하는 논리구조는 앞에서 본 '강절역-서명응역학'의 연장선에서 나온 동일한 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서명응의 역학적 구상의 두 번째 부분이다.

> 무릇 12會에서 巳會와 午會 二會는 12辟卦에서 乾卦와 姤卦 二卦가 되고, 건괘와 구괘는 실제 「선천도」의 西南의 가운데에 있고 여기에서 陰陽昇降이 나누어지고 化育氤氳이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堯舜禹 三聖이 이 二會의 교차점에 바로 해당하니 精一의 中으로 允執의 中을 행하여 밝고 분명함에 지극히 이른다. 시절은 화목한 때에 千古의 人文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른바 '조화를 나누고 경륜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44]

이것은 복희가 「하도」 중궁에서 받은 것이며 공자가 「계사전」에서 언급한 '乾坤 策數로 이미 그 불려나가는 法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뒤에 後人들이 그것을 끝내 알지 못하다가 소강절이 推演하여 그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43) 강절은 자신이 말하는 수가 「하도」 중궁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을 『황극경세서』에서 찾을 수 없다. 강절이 대연에 대해 말한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황극경세서』 「관물외편」, "易之大衍, 何數也. 聖人之倚數也. 天數二十五, 合之爲五十. 地數三十, 合之爲六十. 故曰五位相得而各有合也. 五十者, 蓍之數也. 六十者, 卦數也. 五者蓍之小衍也, 故五十爲大衍也. 八者卦之小成, 則六十四爲大成也."

44) 『황극일원도』 序, "夫十二會之巳午二會, 在十二辟卦爲乾姤二卦, 而乾姤二卦實居先天圖西南之中, 陰陽昇降於此焉分矣, 化育氤氳亦於此焉分矣. 故堯舜禹三聖人適當此二會之交, 以精

12辟卦를 12會에 배분하는 부분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서명응은 「선천도」에 나타난 건괘와 구괘에 해당하는 會가 원회운세에서 12會 가운데 6번째인 巳會와 7번째인 午會의 교차점으로 음양이 균형을 이루고 만물의 생성화육의 분기점임을 말하면서 이를 堯舜禹 셋 성인의 업적, 즉 '千古의 人文의 시작'에 비유하고 있다. 그 배경은『書經』에서 말하는 세 성인이 지닌 '精一'의 중과 '允執'의 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를 앞에서 말한 "선천학은 心法이다. 그림은 모두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萬化萬事는 心에서 생겨난다."와 "하늘은 一中을 향하여 造化를 나누고, 사람은 心에서 경륜을 일으킨다네."를 연결시키면서 약간의 윤색을 거친다. 즉 순서와 내용을 바꾸어 "조화를 나누고 경륜을 일으킨다.",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생겨난다."라고 했다. 서명응은 여기서도 자신의 선천학의 키워드인 '심법'과 '중'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집어 보면 이 도설의 역학적 내력이 강절역의 '심법'에서 나온 것이자 자신의 역학의 핵심인 '中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서명응의 역학적 구상의 세 번째 부분이다.

> 생각컨대 理로 그림을 관찰[45]하면, 선천이 선천이 된 까닭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中이란 道이다. 도는 古今이 없고 또 終始도 없다. 그러므로 비록 氣運이 巳會와 午會를 지나 未會와 申會에서 乾卦와 姤卦를 거쳐 遯卦와 否卦라도, 당세의 人主[英祖]가 만약 三聖의 道를 행하고 삼성의 정치로 다스려서 떳떳하게 三聖心法의 中을 세상에 흐르도록 한다면 천하의 운세를 장악할 수 있고 氣數가 빼앗을 수 없게 함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지금과 夏禹 사이의 거리는 3,900여 년에 불과하고 아직도 午會의 처음임에랴! 성상께서 흔쾌히 先天心法의 中으로 三聖心法의 中을 잇고자 하셨다.[46]

一之中, 行允執之中, 克致昭明, 時雍之中, 千古人文莫不權輿於是, 所謂分造化而起經綸也, 所謂從中起而生于心也."

45) '圖觀理'는 '以理觀圖(리로 그림을 관찰)'의 도치문으로 새겨야 서명응의 뜻에 맞다. 그는 여기서 강절 '以理觀物'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理로 그림을 관찰하면'으로 새긴다.

46)『황극일원도』序, "按圖觀理, 先天之所以爲先天斷可知矣. 雖然中者道也. 道無古今亦無始終. 故雖使氣運過巳午, 而未申歷乾姤, 而遯否世之人主, 若能道三聖之道, 治三聖之治, 常使三聖心法之中, 流行於世, 則天下可運之掌, 而氣數有不能奪, 況今去夏禹之時, 僅三千九伯餘年, 而尙爲午初者乎."

이 부분에서 서명응은 영조의 마음을 觀心하여 영조의 염원에 자신의 의도를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원회운세식 흥망성쇠로 논하면, 발전하여 뻗어갈 때가 아니고 쇠락의 길로 접어든 때이다. 그러나 堯舜禹 三聖의 道로 정사를 베풀면 다시 흥성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가? 먼저 『황극일원도』를 理로 관찰하라고 한다. 강절 관물법인 '以理觀物'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천이 된 연유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선천이 된 연유를 안다면 中이란 道이고 도는 고금과 종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나 중은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으로 自存하는 것이기에 복희시대 선천이든 영조시대 후천이든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조가 선천심법의 중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시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運勢와 氣數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元 129,600년 가운데 夏禹와 영조시대와의 시간적 거리는 3,900년에 불과한 午會의 초에 해당하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영조도 선천심법의 중으로 삼성심법의 중을 계승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의의 강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서명응의 역학적 구상의 네 번째 부분이다.

> 聖上께서 여러 儒臣에게 이 책[황극일원도]을 암송하게 명하니, 그것은 공자의 꿈과 周公의 숨은 뜻이지(숨은 뜻을 알게 하는 것) 어찌 元會運世가 정밀한지 범범한지를 논하는 것이겠는가! 臣은 이 책을 보는 자가 성상께서 이 책을 편수한 본래 취지를 모를까 두렵다.[47]

서명응은 여기서 『황극일원도』가 군주를 위한 제왕학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대부 모두 알아야 할 시대적 도설임을 설파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도 영조의 어명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儒者들 모두 『황극일원도』에 나타난 원회운세의 수적 계산에만 빠질 것이

---

47) 『황극일원도』 序, "此我 聖上所以慨然興壞, 欲因先天心法之中, 以續三聖心法之中. 命儒臣諷誦是書, 蓋亦孔聖夢周公之餘意, 夫豈以考論運世爲精博也哉. 臣恐覽是書者不知, 聖上命修之本旨."

아니라 선천학 본래의 뜻과 영조가 이 도설을 지은 취지, 즉 선천심법의 중과 삼성심법의 중을 깨달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선천심법의 중'과 '삼성심법의 중'은 자신의 의도이지 영조의 지시는 아니었음을 앞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이 역시 서명응의 속셈이 담긴 것인데, 그 속마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자의 꿈과 주공의 숨은 뜻까지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복희에서 주공, 공자로 이어지는 선천학의 계보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 '周公의 餘意'를 첨가한 것이 이채롭다. 말하자면 서명응은 선천학이 시대사상이 되어야 함을 기획하고 있고 그것을 선유들을 동원하여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서명응의 '창의적 변형'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2) 上篇 원회운세론[元會運世圖例] 분석

상편 元會運世圖例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총론과 취지에 대해서이다. 둘째는 12벽괘를 그린 「邵子一元圖」이고 셋째는 「소자일원도」를 역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먼저 중요한 총론과 「소자일원도」를 함께 고찰한다.

> (『황극일원도』의) 모든 그림은 邵子의 『황극경세서』를 推演하여 발휘했다. 만약 總圖[邵子一元圖] 없이 묶었다면 큰 줄기의 근본 있음과 모인 것의 귀결처가 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邵子一元圖를 첫머리에 실은 후 나머지 그림을 차례대로 배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數法의 근원과 分合의 묘함을 일목요연하게 알게 하고자 하였다.[48]

서명응은 자신이 작성한 『황극일원도』가 강절의 『황극경세서』에 근거한다는 점을 먼저 선언하여 그 발원처를 밝혔다. 그가 말하는 '總圖'는 「소자일원도」를 말한다. 이 총도를 편수에 배치함으로써 강절역, 좁게는 원회운세에 나오는 數法의 근원과 分合의 묘함을 선명히 알도록 했다고 그 취지를 말하고 있다. 「소자일원도」가

48) 『황극일원도』 上篇, "諸圖本因邵子皇極經世書推演發揮, 而若無總圖以括之, 則不能見其統之有宗, 會之有歸, 故以邵子一元圖載之篇首. 然後諸圖以次布列, 使覽者瞭然知數法之源, 分合之妙."

있는 점이 신익성과 홍계희가 지은 역사서와 다른 점이다. 「소자일원도」는 어떤 그림인가. 그림을 옮겨서 분석해 본다.

〈표 1〉「邵子一元圖」

元	會	運	世	年	
日甲	月 子 一	星 30	辰 360	年 10,800	復 ䷗
	月 丑 二	星 60	辰 720	年 21,600	臨 ䷒
	月 寅 三	星 90	辰 1,080	年 32,400	泰 ䷊ 開物 星之己 七十六
	月 卯 四	星 120	辰 1,440	年 43,200	大壯 ䷡
	月 辰 五	星 150	辰 1,800	年 54,000	夬 ䷪
	月 巳 六	星 180	辰 2,160	年 64,800	乾 ䷀ 唐堯始 星之癸一百八十2156辰[49]
	月 午 七	星 210	辰 2,520	年 75,600	姤 ䷫ 夏殷周秦兩漢兩晉十六國南北朝 隋唐五代宋
	月 未 八	星 240	辰 2,880	年 86,400	遯 ䷠
	月 申 九	星 270	辰 3,240	年 97,200	否 ䷋
	月 酉 十	星 300	辰 3,600	年 108,000	觀 ䷓
	月 戌 十一	星 330	辰 3,960	年 118,800	剝 ䷖ 閉物 星之戊 三百十五
	月 亥 十二	星360	辰 4,320	年 129,600	坤 ䷁

위 그림은 원회운세 네 단계를 1원 12회 360운 4320세 129,600년으로 구분하고

49) 원래 기재된 '2157(二千一百五十七)辰'는 '2156辰'의 誤字이다. 아마 성리대전 본『황극경세서』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요임금 즉위는 B.C. 2357년 甲辰年이고 이를 원회운세에 대입하면 1元 巳會 癸180運 未2156世이기 때문이다. 고회민 저, 앞의 책, 106면. 楊景磐 著, 2006『皇極經世演繹』, 北京 中國國際廣播音像出版社, 53-56면; 윤상철, 앞의 번역서 1권, 88면 참조. 운행원리는 다음과 같다. 巳會에 배정된 30運(151-180운) 360世(1801-2160辰—世)을 배정하기 위한 중분류 5괘는 需-小畜—大壯—夬卦이고(「방원도」복괘에서 좌선 시계 방향으로 건곤감리 제외한 60괘만 사용) 여기에 각 6運, 72辰씩 배정된다(1운에 12세씩 배분). 운은 10단위이므로 천간이 부여되고, 세는 12이므로 12지를 부여한다. 180운에 해당하는 괘는 중분류 夬卦에서 효변하여 나온다. 夬卦에 배정된 6운은 戊175-癸180이고 요임금은 사회 쾌괘의 끝으로 쾌괘의 마지막 효가 변하는 때이다. 쾌괘의 상효가 변하면 乾卦가 되니 요임금의 운괘는 건괘이다. 癸180운에 배정된 세수는 12세(72÷6=12, 360÷30=12)이므로 2149~2160세 사이이다. 운괘의 6효에 각 2세씩 배분되어 운괘의 효변으로 세괘가 부여된다. 이 내용은 조희영, 앞의 논문, 166-182면에서 일부 가져왔다.

이를 강절의 사부법인 日月星辰으로 재배치하며, 다시 12회에 상응하는 12辟卦를 부여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개물과 폐물의 시기와 인문의 흥망성쇠의 분기점으로 乾卦와 姤卦로 잡고 요임금을 기점으로 삼았다. 위 그림에서 日甲이 현재 元으로 지금 인류의 시대이다. 會는 12지지가 순서대로 배정되고 상응한 易卦가 부여된다. 日甲의 第一會 月子에서 하늘이 열리므로 '天開於子'라 했고 一陽이 처음 생기는 復卦䷗가 해당된다. 第二會는 月丑으로 땅이 열리니 二陽이 생기는 臨卦䷒이며 '地辟於丑'이라 했다. 第三會는 月寅의 開物의 시기이니 '人生於寅'[50]으로 三陽 泰卦䷊를 배정하고 때는 星之己 七十六運이다. 月卯는 第四會, 月辰은 第五會, 月巳는 第六會가 되어 陽氣가 왕성하므로 乾卦䷀로 표시한다. 이때는 인류문명의 전성기인 堯의 시대에 해당하여 星之癸 一百八十 2156辰이 된다. 月午는 第七會인데 이때부터는 陰氣가 시작하여 인문이 기울기 시작하므로 姤卦䷫이다. 역사적으로 夏·商·周·秦·兩漢·十六國·南北朝·隨·唐·五代·宋代까지 해당된다. 지금 이 시점 오늘날도 여기에 해당된다.[51] 月未, 月申, 月酉를 거쳐 月戌 11會 星之戊 三百十五運에 천지가 닫히는 閉物이 된다. 이 그림은 원래 200면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원회운세론의 도설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蔡元定(1135-1198)[52]의 솜씨이다. 즉 채원정이 지은 「찬도지요」에 나와 있고 그것을 『성리대전』 편찬자들이 『황극경세서』의 서두에 실었다.[53] 이것이 있어서 강절의 원회운세론에 편하게 다

50) '天開於子', '地辟於丑', '人生於寅'은 『황극경세서』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황극경세서』, 600면. 『주자어류』 45권 28조목.

51) 2020년은 원[日甲]-회[月午7]-운[星乙192]-세[辰酉2302]에 속하지만, 2301世를 7년을 경과하여 卦로는 姤卦午會-大過卦運-鼎卦世-蠱卦旬-明夷卦年이다. 2301세×30년+7=69,037년이다. 천지가 생기고 69,037년 지났다는 말이다. 폐물까지 남은 기간은 113,400-69,037=44,363년이고, 천지의 마지막까지는 129,600-69,037=60,563년이 남았다. 종말까지 향후 4-6만년 남았다는 뜻이다. 윤상철, 앞의 번역서 5권, 335면. 한중철학회, 2019『주역, 삶에 미학을 입히다』, 종이와 나무, 193-199면 참조.

52) 강절의 후학인 채원정은 강절을 孟子 이래 유일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황극경세서』, 542면, "自秦漢以來, 一人而已耳." 그는 강절역을 모두 이해한 거의 유일한 학자로 인정되며 그가 중간에 역할을 하여 주자가 강절역의 지지자가 되게 했다.

53) 『황극경세서』「찬도지요」, 「經世一元消長之數圖」, 591-592면. 이 표에 대한 해설은 593-602면에 나온다. 채원정은 강절의 성음창화도도 요약하여 「찬도지요」에 실었다.

가갈 수 있었다. 채원정과 성리대전 편찬자들의 혜안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 대한 호평과 달리 강력한 반론이 있다. 고회민은 강절이 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강절의 본의와 다르다고 했다. 그 이유는 12벽괘는 원래 孟喜(B.C. 90-?)의 괘기설에 입각한 것인데, 맹희의 괘기설은 음양재이의 占斷과 術數 위주인 데 반해 강절의 괘기설은 자연법칙과 만물변화의 理를 탐구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12벽괘 배열이 강절과 다르다고 한다. 즉 개물과 폐물의 괘가 泰卦와 剝卦가 아니고 豐卦와 謙卦라는 것이다.[54] 고회민의 주장에서 개폐물의 괘가 豐卦와 謙卦라는 주장은 정확하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필자는 달리 본다. 12벽괘는 맹희의 괘기설과 관계없이 순수한 月卦의 의미로 본다는 것이다. 寅月은 3월이므로 泰卦가 맞고 戌月 11월이니 剝卦가 정당하다. 따라서 12월괘를 12회에 배정한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를 원회운세의 해석 수단으로 삼은 채원정이나 서명응이 학문적 오류를 범한 것도 아니다.[55] 주자 역시 12벽괘가 12회를 관장한다고 했다.[56] 그러나 이 그림은 원본 『황극경세서』에도 없고 明代 徐必達(1562-1645?)이 정리한 『邵子全書』24권(1606)에도 나오지 않는다. 즉 강절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명응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왜냐하면 『소자전서』는 申欽(1566-1628)에 의해 조선에 들어온 이래 150년이 흘렀다. 서명응 같은 당대의 강절역 대가라면 『소자전서』를 통해 이 그림은 강절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예견된다. 그런데 그는 이를 「소자일원도」라 하여 강절의 直著인양 표시하고 있다. 이 그림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성리대전』 본에 있는 것을 기화로 강절의 이름을 끌어온 것 같다. 그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54) 高懷民 著(곽신환 옮김), 앞의 책, 290-291면. 고회민 著, 앞의 책, 57-62, 277-278면 참조.

55) 조희영, 앞의 논문, 170면 참조.

56) 『황극경세서』, 599면, "(朱子曰) 經世書以十二辟卦管十二會. 綳定時節, 却就中推吉凶消長. 堯時正是乾卦九五." 주자는 요임금 때를 乾卦九五爻로 본다.

복희씨 원년은 다른 史書에는 己巳會 庚申運 庚辰世 癸酉年이라 했는데 이는 風씨 姓을 15世 동안 서로 이었다는 설에 미혹된 것이다. 지금「계사전」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五帝가 대를 이은 명백한 증거로 판단하여 己巳會 辛酉運 戊戌世 癸酉年을 복희 원년으로 삼는다.[57]

서명응은 다른 사서와 달리 복희씨 원년을 己巳會 辛酉運 戊戌世 癸酉年이라 한다. 이때를 달력으로 환산하면 B.C. 2999년이다.[58] 이는 강절도 말한 바 없는 서명응의 독자적 주장이다. 이어서 神農氏, 黃帝 등의 연대기도 작성했다. 서명응은 복희 원년 확정의 근거로「계사전」을 거론한다. 계사 하 2장에 나오는 '복희씨-신농씨-황제-요-순'이 인문의 개화에 기여한 사실[59]에 착안하여 五帝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희씨 원년의 명백한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B.C. 2999년이 복희씨 원년이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복희 즉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하도」를 본받아 역괘를 그었다[則河圖畫卦]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60] 이는 앞에서 본 서명응 역학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하도」중심 선천학을 나타낸 것으로 자신의 역학적 종지를 이 도설에서도 천명한 셈이다.

고조선의 시조인 檀君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57)『황극일원도』 上篇, "伏羲元年, 諸史或稱己巳會庚申運庚辰世癸酉年, 此蓋惑於風姓相承十五世之說也. 今以繫辭中孔子之言, 爲五帝相代之明證斷, 以己巳會辛酉運戊戌世癸酉年, 爲伏羲元年."

58) B.C. 2999년 산출은 堯즉위년이 B.C. 2357년 甲辰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연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차치하고 이 설은 西晉 때 皇甫謐(215~282)이 주장한 이래 강절이 지지했다. 그래서 강절류의 책에서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고 서명응도 마찬가지다. 이를 기준으로 逆算하여 서명응은 B.C. 2999년을 복희 원년이라 하고 이를 원회운세로 따지면 己巳會 辛酉運 戊戌世 癸酉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考證이 불가능하다.

59) 계사 하 2장,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중략)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罔罟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중략)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

60)『황극일원도』上篇, 18면 참조. 면수는 규장각본에 나타난 면수임.

요임금 재위 25년 戊辰年에 단군이 東方의 우리나라를 개국했다. 그러므로 이 해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일을 기재한다. 중국의 사실은 칸의 오른쪽, 우리나라 사실은 왼쪽에 기재하여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61]

요임금 재위 25년 갑진년(B.C. 2333)이 단군조선이 건국한 연도라고 못 박는다. 이로써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의 시발점이 B.C. 2333년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사와 중국사를 이 도설 한 칸의 좌우로 나누어 병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좌측에 실제 한국사가 처음 기재된 때는 丙寅運 辛丑世 戊午年 '箕子卒壽九十三'[62](B.C. 1122)이다. 箕子와 기자의 근거지인 평양에 대한 서명응의 관심은 남다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자를 통해 잊혀졌던 『홍범구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하도」 先天學의 자취를 알아보려는 서명응의 학문적 욕구가 그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12회 가운데 4-5회인 卯辰會를 생략했는데 그 이유는 혼돈의 시대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午會 12運 이후 소략하게 한 부분은 總圖[「소자일원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원회운세를 나타내는 네모난 각 칸에 기재된 子午의 중요성에 대해 "子는 반드시 시작 지점에 있고 午는 중간에 있어서 서로 조금도 틈이 없다. 여기서 造花의 妙處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모두 子午 二至로 파악할 수 있다."고도 했다.[63] 마지막으로 「소자일원도」를 易學的·理數的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그림 뒤의 문장이다.

「邵子一元圖」는 日月星辰의 四象을 착종하고 번갈아 곱하여 이 수를 기재하고 끝마치기를 12벽괘로 하면서 天地之數를 거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대저 천지지수는 천지의 이치에서 나오고, 理는 大小와 遠近이 없다. 그러므로 1년의 수를 안다면 一元의 수를 복잡하게 계산하지(종횡으로 잡고 셈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음은 왜일까. 一

61) 『황극일원도』 上篇, "唐堯二十五載戊辰, 檀君始開我東方, 故自是年始紀東方事實. 而中國事實載一井之右半, 東方事實載一井之左半, 使不相混焉."

62) 『황극일원도』 上篇, 24면, 35면 참조.

63) 『황극일원도』 上篇, "子午二至在天爲南北, 二極在星爲天正, 二位在日爲冬夏二至, 故其甲子之運行, 子必居始, 午必居中, 相對相閒無一幾爽, 此可見造化之妙處, 故凡子午二至, 皆圈以識之."

元의 12會는 1년의 12月이고, 1원의 360運은 1년의 360日이며, 1원의 4320世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1원 129,600년, 1회 129,600월, 1운 129,600일, 1세 129,600時[辰]가 있고 그 子會 天開는 1년에서는 동지이고 丑會 地闢은 1년에서는 大寒이며, 寅會 人生은 1년에서는 驚蟄이다. 경칩 후 32,400년 巳會는 요임금 때에 해당하여 乾卦 六陽이 성대하다가 舜임금에 이르고 丁巳年에 禹임금에게 선양 후 7년 癸亥年에 비로서 午會 姤卦 一陰이 始生하고, 32,400년 뒤에 이르러 마침내 戌亥로 이어져 剝卦 五陰이 되고 坤卦 六陰이 되니 사람과 만물이 모두 닫혀져 一元이 마침내 끝난다. 一元의 始終 1년의 寒暑 1월의 晦朔 1일 朝夕 大小遠近 또한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달려)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수는 착착 서로 부합하여 瑞承瑁[64]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理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수 역시 위배할 수 없는 것이다.[65]

위에서 서명응은 몇 가지를 말했다. 첫째, 12벽괘도인「소자일원도」의 구성은 강절의 만물분류법인 四府法에 따라 원회운세를 일월성신의 넷으로 분류하고 易數이자 曆數인 12와 30을 착종하듯 相因하여 원회운세수를 도출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이 수는 天地之理에서 나온 天地之數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수의 조합이니 1년 360일을 기본으로 1원 12회 360운 4320세 129,600년이 연월일시로 연산된다는 점을 말하였다. 셋째, 子丑寅會에서 천지인물이 생기는 점과 24절기의 상관성을 논하면서 인문이 피어난 요임금 때는 巳會 乾卦로 陽이 왕성하고 순임금을 거쳐 우임금 7년에 午會로 姤卦가 시작하여 인문의 내리막길이라는 점을 말하

64) '瑞承瑁'의 의미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가 질의를 했으나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 아마 瑞玉의 일종으로 부절처럼 양쪽이 반씩 가지고 있다가 합하면 하나로 맞추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65)『황극일원도』 上篇, "右邵子一元圖, 蓋以日月星辰之四象, 錯綜乘因, 以紀此數, 而終之以十二辟卦. 擧天地之數, 不外是矣. 大抵天地之數出於天地之理, 理無大小, 亦無遠邇, 故知一年之數則一元之數, 不待握算縱橫可以得之何者. 一元之十二會, 卽一年之十二月也. 一元之三百六十運, 卽一年之三百六十日也. 一元之四千三百二十世, 卽一年之四千三百二十辰也. 於是一元有十二萬九千六百歲, 一會有十二萬九千六百月, 一運有十二萬九千六百日, 一世有十二萬九千六百辰, 而其子會天開, 在一年則冬至也. 丑會地闢, 在一年則大寒也. 寅會人生, 在一年則驚蟄也. 驚蟄後三萬二千四百年之巳會, 正當堯時, 爲乾之六陽, 方盛及舜, 丁巳禪禹, 後七年癸亥, 始入午會, 爲姤之一陰始生, 以迄三萬二千四百年之終, 戌亥繼之, 爲剝之五陰, 爲坤之六陰, 則人物皆閉, 一元遂終. 夫以一元之始終, 一年之寒暑, 一月之晦朔, 一日之朝莫, 大小遠近, 亦可謂甚相懸也. 然其爲數錯錯相符, 如瑞承瑁者無他焉. 以其理之一也, 以其理之一, 故數亦不能違也."

고 있다. 이때가 선천과 후천의 분기점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넷째, 戌會와 亥會를 거쳐 剝卦 五陰과 坤卦 六陰이 되면 사람과 만물이 모두 닫혀 一元이 끝난다. 이런 一元의 시종이나 1년, 1달, 1일의 시종 또한 數와 理로 치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理'는 불변이기에 원회운세의 수도 리를 위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가 말하는 수는 리와 동의어로, 바로 理數이다. 이상의 글은 앞에서 본 강절역 리수론의 재현임을 알 수 있다.[66]

3) 下篇 천세력[千歲歷圖例] 분석

앞에서 말했듯 그 어떤 원회운세식 역사서에 없는 未來曆인 '천세력'이 『황극일원도』 下篇에 자리잡고 있다. 千歲歷圖例에서 두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천세력 기간에 대해서이다.

> 맹자는 "천년 뒤의 日至[冬至]라도 앉아서 알 수 있다."[67]고 했다. 이편[下篇]에 이르러 聖上[英祖] 즉위 이후 120년간을 미리 추산하였기에 천세력이라 했다. 曆法에는 三元이 있으니 甲子에서 시작하여 癸亥에서 마쳐 一元이 된다. 하편은 성상의 紀年을 나누어 三元으로 삼으니 즉위해인 甲辰年부터 59년째인 癸卯年을 上元이라 하고, 또 60년째 갑진년부터 119년째인 계묘년을 中元이라 했다.[68]

---

66) 익명의 심사자께서 "자연의 우주론적 수리적 원리와 역사운행의 원리가 심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물으셨다. 수리와 역사와 심법과의 상호 관련성을 물으신 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강절의 원회운세론은 역사운행이 12와 30의 수리 적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는 周易에다 曆數와 易數를 동원하여 일정한 수적 패턴을 적용하여 순환하는 우주의 가상 역사연대기를 만든 것이다. 이때 역사의 흐름을 보는 관점은 자신의 특유의 '선천학은 심법'에서 나오는 '심법'이다. 말하자면 이 모두는 그의 선천학 체계에서 나온 것이며 그 핵심은 심이다. 그의 관물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以心觀物[歷史]'인 셈이다. 심으로 역사와 수리를 보는 것이다. 또 "심법의 원리가 실천적 원리로 전환되는 국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다. '심법의 실천적 원리'는 '誠'을 통해 이루어진다. 誠의 실천을 통해 현 국면이 복희시대 같은 선천시대 사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67) 『孟子』 離婁章句 下 26장,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

68) 『황극일원도』 下篇, "孟子曰, '千歲之日至可坐而致.' 此篇自我 聖上卽祚以後一百二十年, 預爲推算, 故名千歲歷. 曆有三元起甲子止癸亥爲一元, 而此篇則以我 聖上紀年分爲三元. 自卽

서명응이 작성한 천세력은 시헌력에 기초한 120년간의 절기이다. 영조 즉위 해인 갑진년 1724년부터 1843년 계묘년까지 120년인데, 이를 둘로 나누어 즉위한 갑진년 1724년부터 1783년 계묘년까지 60년을 三元 중 上元이라 하고, 재위 60년 갑진년부터 119년째 1843년 계묘년 60년을 中元이라 했다. 보통 三元은 60갑자의 세 번 순환을 의미하고 甲子에서 癸亥까지 60년을 하나의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서명응이 영조 즉위 해인 甲辰年을 기준으로 한 점은 군주에 대한 예의로 보인다. 물론 영조는 1776년 재위 53년에 사망했고 이 도설은 재위 51년 1774년에 완성되었다. 영조는 드물게 장수(81세)하고 오래 재위한(만 51년 7개월) 군주이지만 본 천세력의 상원 60년도 못 채웠고 이 도설을 본 기간도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전에는 천년 뒤의 일들이 궁금한 법이다. 그래서 영조는 장래 절기의 사전 인지를 통해서라도 천문지리의 변화와 세상의 변동을 추산하고 예측하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절의 원회운세론을 강절역의 대가인 서명응을 통해서 조선식으로 기재하게 하고 거기다 천세력을 더해서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고자 한 것이다. 서명응이 맹자의 말을 인용한 맥락도 과거의 연고를 정확히 알면 앞날에 일어날 일도 앉아서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미래에 가지 않더라도 과거 지사가 발생한 原理를 알면, 그 원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이기에 현재 앉아서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서명응이 상편에 조선역사를 정밀하게 서술하고 영조의 명에 의거 천세력을 넣고 그 제목에서 '황극일원'을 거론한 것은, 천세력 역시 강절 선천학의 내포 속에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다.

둘째, 중국과 우리와의 경도 차이에 대해서이다.

> 우리나라 合朔은 중국 燕京[北京]에 비해 (經度) 42분이 더해지므로 1달의 大小가 가끔 중국 책력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 曆法이 이미 중국역법을 따라 시행한 지 오래 되었기에 이에 고치지 않을 뿐이다. 절기의 늦고 빠름은 동서의 경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燕京에 비해 10도 30분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모든 절기 또한 42분을 더한다.[69]

祚之甲辰至五十九年之癸卯爲上元, 又自六十年之甲辰至一百十九年之癸卯爲中元."

69) 『황극일원도』 下篇, 我 國合朔比燕京加四十二分, 故月之大小往往與中曆不同. 然我 國曆法

위에서 당시 책력인 시헌력과 자신이 지닌 천문지식으로 북경과 한양의 경도 차이를 말하고 이에 따른 절기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천세력에는 매월의 대소와 朔日의 60갑자와 24절기 입절기의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다.[70] 구체적으로 한양이 연경에 비해 10도 30분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절기의 입절 시간에 42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양이 연경에 비해 42분 늦게 절기가 든다는 뜻이다. 서명응은 선천역학과 당시 최신 책력을 통해 천문역산에 밝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양의 최신 천문역산학은 원래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西法中原由來說'의 신봉자이고 이러한 서양 천문학이 선천학에 포함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曆法 또한 선천학에 속한다고 그는 생각했다.[71] 천세력은 주로 曆法 위주이고 순수 易法적인 부분은 적어서 서명응의 역학사상을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4. 마치는 글-절반의 성공

『황극일원도』는 원회운세식 조선 역사서로 앞서 신익성과 홍계희가 지은 것과 같은 종류의 역학적 역사서이다. 그에 비해 내용이 충실하고 미래력인 천세력이 들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물론 영조의 어명에 의해서이다. 영조 때 홍계희와 서명응의 역사서가 지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면 영조는 강절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조선역사에 대입하고자 하는 욕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영조의 마음에 편승하여 서명응은 자신의 역학사상을 이 도설에 마음껏 펼쳤다. 이 도설은 선행지식[강절역과 서명응역]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글은 먼저 강절역과 서명응 역학이 이 도설에 영향을 끼친 부

既沿襲中曆行之已久, 故玆不更改云爾. 節氣早晩以東西而異焉, 我 國在燕京偏東十度三十分, 故凡諸節氣亦加四十二分.

70) 천세력에 대해서는 박권수, 앞의 논문, 73-76면 참조.

71) 선천학과 천문역법에 대해서는 조희영, 앞의 논문, 100-110, 284-296면 참조.

분을 먼저 살펴보았다. 또 이 도설을 다시 3분하여 서문, 上篇 원회운세론, 下篇 천세력 순으로 분석하되 객관적인 시각과 비판적 관점을 유지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강절역은 조선역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역학뿐 아니라 인문학, 자연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도설도 강절역의 자장 아래에 있는 인문학 속 역사학이라 할 수 있다. 강절역에서 이 도설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원회운세론, 관법론, 심법론 등이다.

서명응은 조선 후기 강절역의 대가이다. 그의 역학사상은『선천사연』에 들어 있고 이 도설은『선천사연』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하도」선천학이라 할 수 있고 키워드는 '심법'과 '중[「하도」중궁 포함]'이다.「하도」중심 선천학은 강절과 다른 그의 독특한 역학관의 산물로 '조선의 선천학'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독특함은 역학 전반에 걸친다. 그는 먼저 선천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先天四演]과 네 가지 길[先天四道]이라는 신작로를 보여주면서 그 길 위에 역동적인 天體易學觀을 제시하고, 역괘 생성은 64괘가 먼저고 8괘는 그 뒤라는 획기적인 주장도 한다. 또 범위를 넓혀 선천학으로 西學과 道家를 수용한다. 그러면서 모든 논의를 '一事無'와 '中'을 통한 복희 선천 心法으로 귀결시킨다. 한편 그는 '창의적 변형'을 통해 원저자의 의사와 다르게 그림을 과감하게 개작[방원도▢→◇]하여 자신의 독자적 선천학을 공고히 했다.

이 도설의 짧은 서문에는 서명응의 역학사상이 녹아 있다. 예를 들어 "先天心法의 中을 여기『황극일원도』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이 도설의 중요성을 말하고는 "수를 理에 짝하여 끝내 심법의 中에 귀결되며, 강절의 數는 大衍의 中에서 나왔고 대연의 중은「하도」의 중에서 나왔으니 이른바 先天學"이라 하여 선천학의 전개 과정에 자신의 관점을 보태어 말한다. 이어서 "선천학은 心法이다. 그림은 모두 中을 따라서 일어나고, 萬化萬事는 心에서 생겨난다."라는 강절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담보한다.[72] 그러면서 강절의 관물론을 등장시켜 "『황극일원도』를

72) 익명의 심사자께서 강절의 심법과 서명응의 심법 및 二程子와 주자의 심법과의 차이에 대해 물으셨다. 강절은 心을 道, 太極으로 환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자신의 선천학 체계 속에 있고, 선천학의 심으로 道家도 포섭한다. 이런 강절의 심법과 서명응의 심법은

理로 관찰하라."라며 '以理觀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리관물'하면 선천이 된 연유를 알 수 있고 선천이 된 연유를 안다면 中이란 道이고 도는 고금과 종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나 중은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것이기에 복희시대 선천이든 영조시대 후천이든 동등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영조가 선천심법의 중과 삼성심법의 중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運勢와 氣數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복희 선천시대와 같은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영조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을 선사한 셈이다. 이처럼 이 도설에는 강절역의 두뇌인 관물론과 심장인 심법론이 깊이 스며 있다. 또한 『황극일원도』가 군주만을 위한 제왕학이 아닌 사대부 모두가 알아야 할 시대적 계몽도설임을 주장한다. 즉 이 도설을 儒臣들이 암송하여 선천심법의 중과 삼성심법의 중을 깨달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명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서명응의 기획 의도라 할 수 있다.

서명응은 왜 과도할 정도로 본인의 의도를 이 도설에 나타냈을까? 당시는 주자학이 흔들리고 서학과 실학이 불붙는 때이자 기존 학술을 회의하던 때였다. 이런 때 심법과 「하도」 중궁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선천학'을 전면에 내세워 시대를 선도할 사상적 표준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선천학으로 역학, 경학, 천문역법, 성음율려, 도가, 나아가 서학까지도 포섭하고 융합하려 했다. 그럼 과연 서명응의 의도는 실현되었을까? 섣부른지 모르지만 그의 의도는 절반만 성공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가 온몸으로 매달렸던 선천학은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했

대동소이하다. 다만 서명응은 心에다 中을 결부시키는 밀도가 강하며, 복희와 「하도」를 심에 결부시키는 것이 특색이다. 주자는 心을 性情을 통괄한다[心統性情]고 하고, 氣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며[心者, 氣之精爽, 氣之靈], 혹은 理와 하나[心與理一]라고도 한다. 이처럼 주자에게서 心은 다의적으로 쓰인다. 즉 理氣와 性情을 넘나드는 포괄적인 의미로 쓴다. 정이천은 心은 하나지만 본체로서 말한 것-寂然不動-이 있고, 작용으로 말한 것-感而遂通天下之故-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심을 체용으로 나누어 보면서 여기다 性情과 이발미발을 결부시킨다. 정명도는 心이 天이고 천이 理라 했다(只心便是天. 天者理也). 즉 그는 심을 거의 절대적 존재로 봤다. 풍우란은 송명도학의 양대축인 心學과 理學 가운데 리학은 정이천이, 심학은 정명도가 창시자라고 한다. 정명도 심학에서 양명 심학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상 4명이 말한 心은 그 본원으로 올라가면 상통하겠지만 각론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 때문이다. 학계와 사상계는 그의 선천학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았다. 지식인들이 보기에 심법과「하도」중궁은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는 진부한 주제였고, 그들은 좀 더 참신한 것을 원했다. 또 후원자였던 정조의 이른 서거, 18-19세기 정계와 사상계의 변화, 기울어져 가는 조선의 국운, 가문의 쇠퇴 등이 그의 선천학이 꽃피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이었다. 다만 그의 선천학을 기반으로 범위를 넓혀간 천문학, 음악, 농업, 지리학, 수학, 도가 중에서 유용한 부분은 현재에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그가 남긴 삶과 학문자세 -새로운 관물정신으로 새로운 지평 모색- 는 아직도 살아 있기에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겠다.

논문투고일(2020. 10. 10), 심사일(2020. 11. 25), 게재확정일(2020. 12. 10)

참고문헌

1. 자료

『周易』, 『書經』, 『周易傳義大全』, 『孟子』, 『皇極經世書』, 『伊川擊壤集』, 『易學啓蒙』, 『皇極一元圖』, 『保晩齋叢書』, 『先天四演』, 『周易本義』, 『朱子語類』, 『漢上易傳』, 『參同攷』.

2. 연구논저

高懷民 著(곽신환 옮김), 2011『소강절의 선천역학』, 예문서원.
고회민 著, 1997『邵子先天易哲學』, 臺灣 荷美印刷.
김상섭, 2006『내 눈으로 읽는 주역 역경편』, 지호.
료명춘 외 2명 지음(심경호 옮김), 2004『주역철학사』, 예문서원.
맹천술, 1987『易理의 새로운 해석』, 수영문화사.
邵康節 原著(王植 編, 윤상철 編譯), 2011『황극경세』, 대유학당.
楊景磐 著, 2006『皇極經世演繹』, 北京 中國國際廣播音像出版社.
朱伯崑, 2005『易學哲學史』2권, 北京 곤륜출판사.
한중철학회, 2019『주역 삶에 미학을 입히다』, 종이와 나무.
黃壽祺・張善文 撰, 2007 (13經 譯注)『周易 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김문갑, 2000「邵雍 先天易學에 관한 연구-宇宙論과 心性論 體系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金文植, 1999「徐命膺의 생애와 奎章閣 활동」,『정신문화연구』75.
박권수, 2018「曆書와 歷史:조선후기의 象數學的 年代記書와 時憲曆」,『동국사학』64.
유승상, 2019「송대 「하도」「낙서」 도상의 출현과 그 정립과정」,『주역의 연원과 한중 역학의 지평』(한중철학회 편), 경인문화사.
이대승, 2017「서명응 선천학의 스펙트럼과 초점」,『한국실학연구』33.
이봉호, 2005「徐命膺의 先天學 體系와 西學 解釋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장원목, 2003「보만재 서명응의 학문과 학문」,『한국사상과 문화』22.
曺蒼錄, 2004「조선조 開城의 學風과 徐命膺 家의 學問」,『대동문화연구』47.
조희영, 2011「徐命膺의『先天四演』에 관한 硏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韓芪燮, 2010「徐命膺一家의 博學과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deas of I-ching in『Hwanggeuk Ilwondo(황극일원도)』by Seo Myung Eung(서명응)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of Shao-Yong's I-ching and Seo Myung Eung's I-ching

Cho, Hie-Young *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Seo Myung Eung's『Hwanggeuk Ilwondo』, a work preserved in Gyujanggak(규장각).『Hwanggeuk Ilwondo』shares the style of historical books written by Shin Ik-seong(신익성) and Hong Gye-hee(홍계희) in the early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influenced by Shao-Yong(邵雍:소강절)'s Wonhoeunse(원회운세). However,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content is substantial and contains a thousand year future calendar. This book came from the mechanism of Shao-Yong and the mechanism of Seo Myung Eung from Shao-Yong's I-ching(강절역).

Shao-Yong's I-ching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iconography(도상론)[Seoncheondo「선천도」]- Wonhoeunse theory(원회운세론)- Voice creation theory(성음창화론)-Gwanmul theory(관물론)-Risu theory(理數論)-the law of the mind theory(심법론). The I-ching of Seo Myung Eung was focused on his Seoncheonsayeon(先天四演). He put forward the four roads leading to Seoncheon(선천), which he suggested, and he tried to establish a new Seoncheonology of Joseon(조선의 선천학) with the Hado Junggung(「하도」중궁).

The analysis of『Hwanggeuk Ilwondo』was divided into the preface, the upper and lower parts. In the preface, it was possible to confirm Yeongjo(英祖)'s wishes and the true intentions of Seo Myung Eung, so it is said that the mathematics of Shao-Yong

* A 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Korean Philosophy(I-Ching), Chosun University.

eventually came from Hado Junggung.

By reading this book, he awakens the law of mind of Seoncheon(先天心法) and the three Saints heart Law(三聖心法), and speaks silently that the birth of the Bokhee(伏羲) is possible even in the era of King Yeongjo of the Hucheon(후천).

Seo Myung Eung emphasized that if you know exactly what is due to the past, you can easily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rough this book, Seo Myung Eung tried to make Seoncheonhak(선천학) as the central idea of the times. It was presented to Yeongjo as King of Kings and as a book of enlightenment to lead the era to the nobility, but was only half successful.

Key words : 『Hwanggeuk Ilwondo(황극일원도)』, Seo Myung Eung(서명응), Seoncheonhak(선천학), 『Seoncheonsayeon(先天四演)』, the law of mind of Seoncheon(先天心法), Hado Junggung(「하도」 중궁), Shao-Yong(邵雍:소강절), Wonhoeunse(원회운세)